

大學教育의 方向과 課題

金 善 陽
(仁荷大 教育學科 教授)

무릇 大學의 課題는 敎育과 研究로 大別할 수 있다. 만일 大學이 敎育을 경시하고 研究에만 주력한다면 한갓 研究院으로 둔갑하게 된다. 그렇다고 敎育에만 重한다면 학문이 退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이 두 가지 機能을 조화시켜 수행함으로써 社會奉仕의 役割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I

새로운 大學의 理念과 目的을 定立하여 그 實踐에 힘쓴 나라가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隊列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오랜 歷史가 증명하고 있다. 唐의 國子監에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日本, 印度支那 등의 留學生들이 운집했던 것만 보아도 國勢와 學問研究의 隆盛, 大學의 發展과는 깊은 相關關係가 있다.

멀리는 Paris大學만 해도 오랜 동안 全歐羅巴 社會에 지대한 文化的 影嚮을 주었다. Paris大學에 유학을 하였던 英國의 지식인들이 최초로 設立한 大學이 Oxford大學이다.

또한 Berlin大學의 創建은 지리떨려진 獨逸에서 全獨逸帝國의 誕生을 가능케 하였고 學問研究와 人材養成의 중심지가 되었다. Berlin大學은 구라파는 물론 멀리 美國에까지 지대한 影響을 주었고, 1876년에는 마침내 Johns Hopkins大學의 설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Berlin大學의 발전은 獨

逸의 繁榮을 가져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본떠서 雨後竹筍처럼 설립된 美國의 大學은 社會奉仕的, 實用主義的 大學이라는 새로운 理念과 類型의 여러 大學들로 나타나 오늘날의 美國 社會를 이룩하는 데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II

大學의 理念 및 類型의 發展過程은 다음의 네 段階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 段階는 소위 古代大學으로 中國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古代大學인 太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官吏養成, 指導者 養成을 위한 大學이라 할 수 있다. 즉 明明德, 新民, 止於至善이라 하여 밝은 德을 밝히고 百姓을 새롭게 하는 社會的 指導者를 지향하는 大學을 말한다.

둘째 段階는 中世大學으로 Salerno大學, Bologna大學, Paris大學 등을 들 수 있다.

세째 段階는 近代大學으로 Halle大學, Berlin

大學을 들 수 있다. 이 대학들은 孤獨(Einsamkeit)과 自由(Freiheit)를 표방하여 專門家의 양성이나 實用的 지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利害를 초월하여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우수한 國民을 교육하는 길이라 믿어 왔다. 다시 말하면 學問을 위한 學問의 大學을 표방했기 때문에 소위 象牙塔이라고 불리어 왔다. 여기에는 洪볼트(W. Humboldt)뿐만이 아니라 칸트(I. Kant)나 슈라이엘마하(F.E.D. Schleiermacher) 등의 哲學者들이 學問의 중요성을 力說한 데 힘입은 바 크다.

네째 段階는 오늘날의 美國 大學으로 대표되는 社會奉仕大學 및 職業主義(vocationalism)의 색채가 강한 實用主義的 大學을 들 수 있다.

현대 社會는 社會 全分野에 걸쳐 급격한 變動과 改革 속에서 진전되어 가고 있다. 이 속에서 現代大學은 兩面으로 도전받고 있다. 즉 대학의 傳統과 基本機能을 유지해야 하는 問題와 대학의 社會的 機能과 그 要請에 부응해야 하는 實用的 改革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다. 現代大學은 세계적인 趨勢로 보아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몇 가지 새로운 變化過程을 겪고 있다.

첫째, 高等教育的 급속한 發達과 擴張으로 인해 소수의 엘리트 양성이라는 固定觀念이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大學院 志望者數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社會全體의 知識·情報·技術의 水準이 높아질수록 이에 맞추어 보다 優秀한 頭腦와 各分野의 엘리트를 고루 양성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앞으로 大學이 國家社會의 現實과 고립되어서는 學問發展이나 研究가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孤獨과 自由를 엄격히 주장하는 傳統的 方法으로는 현실적으로 學問·科學自體가 침체되거나, 大學의 經營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現代大學은 그 機能을 公共性에서 고려하게 되었고, 나아가 地域社會와 國家와의 協力關係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세째, 現代大學은 그 諸般活動이나 研究의 質과 量에 있어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대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學事行政制度도 방대한 구조로 改編되기에 이

르렀다. 여기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로는 基礎科學과 應用科學과의 衡平問題, 전공분야의 再調整問題, 각종 연구기관과의 提携問題, 연구비의 支援問題, 대학행정의 管理問題, 학문의 研究와 그 社會的 要請問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제들이 山積되어 있다. 더우기 해결해야 할 課題는 大學教育課程의 問題로서 各 大學마다 敎養教育을 중심으로 한 教育課程改革의 論爭은 世界的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現時點에서 우리에게 보다 靚실히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韓國의 大學教育이 하루바삐 그 後進性을 극복하여 세계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새로운 理念과 類型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大學은 적어도 先進國의 大學보다 상당한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

1860年代의 Harvard, Yale, Columbia, Princeton, Michigan 등 종래 'college'였던 대학들이 大學院大學으로 속속 개편된 것이라든가 1876年 Johns Hopkins大學의 創建을 생각해 볼 때, 서울대학교의 大學院大學에로의 轉換準備와 「韓國科學技術院」「精神文化院 大學院」등이 실제로는 碩士, 博士課程만을 가진 최초의 大學院大學이라고 看做한다고 해도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한편 1870年代의 美國 大學도 西歐 大學에 미하여 심한 後進性을 드러내고 있었다. 많은 美國의 유학생들이 구라파로 갔으며 특히 Berlin 大學이 그 人氣가 높았다. 그래서 1870年代의 미국의 교육계는 大學院教育을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美國 大學의 質을 높이느냐에 큰 노력을 傾注하였던 것이다. 深奧한 學術研究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觀念에 사로잡혔던 1870年代에 일대 學的 冒險을 감행한 것이 순수한 大學院大學으로 출발한 Johns Hopkins大學의 創建이었다. 지금부터 꼭 106年前이 되는 셈이다.

이 大學이 大學院大學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歐羅巴 大學이라고 해서 별것이겠는가」「우리도 하면 可能할 수 있다」는 自信 아래 大學院教育에 주력한 Yale大學이나 Harvard大學 등 名門大學의 學的 노력에 의해 오늘날 세계에

서 사랑하는 美國 現代大學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III

東洋에서는 大學의 理念을 「大學」 章句에 있는 三綱領 八條目에서 찾을 수 있다. 大學은 明德을 밝히고, 百姓을 새롭게 하여 至極한 善에 머무르는 데 그 本質이 있고, 大學의 基本理念은 人間의 人格完成을 기하여 聖人君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治人, 治國을 目標로 한다.

西洋에서는 大學의 理念으로 Jaspers가 말한 研究·教育·奉仕로 대표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가금까지 大學史에서 變遷定立된 대학의 이념 가운데 대학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서 어느 대학에서나 구현할 不朽의 理念이다.

韓基彦교수는 새로운 大學의 理念을 다음 셋으로 들고 있다.

첫째, 眞理의 探究다. 창조자로서의 大學은 본질적으로 眞理의 探究와 創造의 殿堂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는 學生教育을 통하여 이미 밝혀진 學問的 成果를 전달하는 한편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集團的으로 부단히 研究活動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진리의 발견에 힘써야 되겠다. 따라서 大學社會에서 가장 소중한 말의 하나는 獨創性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教授 스스로가 이러한 獨創性의 具現者가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한편 學生의 경우는 바로 교수들의 이와같은 學者的 體臭와 대학의 雰圍氣를 통하여 獨創性의 추구가 무엇인가를 크게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指導者의 人格 修養이다. 西洋 大學의 경우는 眞理探究에 주력한 나머지 大學이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機能을 발휘하게는 되었으나 한편 人間味가 없는 차디찬 知性的 殿堂으로 화하여 버렸기 때문에 人間味에 대한 復活이 절실히 요청된다. 요즈음 歐美 大學에서의 大學改革의 焦點이 대학생의 人格形成의 문제로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우리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 결코 知識이나 技術의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人格形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人類平和와 社會奉仕이다. 이 平和의 理念은 달리 말하면 大學機能의 하나인 社會奉仕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근래에 와서 「產學協同」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었다. 이것은 大學이 眞理를 탐구함으로써 밝혀진 眞理를 一般社會라든가 產業技術에 적용함으로써 生産高를 높이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奉仕의 機能 面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 한편 각종 器資材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實習을 함으로써 단순한 學術理論 面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實際經驗을 쌓을 수 있게 해 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奉仕나 產學協同의 참뜻은 大學社會가 眞理探究를 한 결과 마침내 남은 慧澤이 一般社會에 미치게 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大學은 끝까지 人類社會의 繁榮이라는 높은 理想에 目標를 두고 社會奉仕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로 사회봉사의 理念, 平和의 理念은 대학사회가 眞理探究의 殿堂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특전에 대하여 보답하는 자연스러운 報恩의 형태라고 하겠다.

우리 大學人의 獨創성과 피나는 刻苦와 절제적인 教育的, 財政的 支援이 요망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V

現代社會가 갈수록 非人間化되어 가고 沒價値化 傾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大學教育의 改革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全人教育和 共同善을 中心價値로 하는 大學教育 改革 目的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 ① 學生의 精神力 啓發
- ② 道德的·知的 精神習慣의 涵養
- ③ 개인의 機能 發展
- ④ 全人의 訓育
- ⑤ 학생들에게 世界文化에 대한 지식의 賦與
- ⑥ 교육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共同善에 奉仕하는 것.

이 내용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文化·教育·技術을 人間價値로 조화시켜 나아가는 教育課程의 開發이 절실히 된다.

또한 朴鍾鴻교수는 「大學의 權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大學의 權威는 새로운 國家社會의 自覺의인 自己形成에 있어서의 責任을 完遂하는데 이바지하는 點에 있어야 한다. …… 그런 만큼 大學의 權威는 國家가 살려야 한다는 것쯤은 理解하여 한다. …… 그러나 高貴한 權威는 힘든 責任을 반드시 同伴하는 법이다. 大學에 부여된 使命이 크기에 權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리라. 大學의 權威를 失墜케 하는 것은 大學外部에 있다기보다도 事實인즉 學問研究에 透徹치 못한 大學의 構成員 즉 教授와 學生 自身에 있음을 오늘의 現實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反省하게 된다.」

무릇 大學의 課題는 教育和 研究로 大別할 수 있다. 만일 대학이 教育을 경시하고 研究에 만주력한다면 그것은 한갓 研究院으로 둔갑하게 된다. 그렇다고 教育에만 置重한다면 學問이 퇴보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이 두 가지 機能을 調和시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같은 입장에서 大學은 研究보다 教育에 더 注重해야 한다고 본다.

後進國家의 公同적인 課業은 經濟發展과 그에 따른 國民所得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이 基礎工事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야 학문에 의한 世界文化에의 寄與가 되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研究를 중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되, 國家社會發展에 寄與하는 순위에 의하여 그 順次를 정하고, 그것도 대학에서는 研究보다 教育에 그 主力을 경주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순한 學者보다는 社會指導者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전체의 教育이 初等學校에서 大學에 이르기까지 知識과 技術만을 傳授하고 學者養成에로만 흐르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學

者와 世界的 碩學이 배출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發展途上國에서는 단순한 학자보다 우리 社會를 復興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도자가 강력하게 要請된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인물은 政治의 심오한 理論을 연구하는 학자보다도 올바른 政治發展을 이끌 수 있는 양심과 애국심을 지닌 人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인물도 神學에 대한 基本問題나 교회의 教義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는 神學者보다도, 이 不道德한 社會를 道義的 社會秩序로 전환케 하는 데 앞장설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이 지향할 目標은 社會 各 分野에서 指導的 人材를 기르는 데 注力해야 하는 것이고, 학자의 양성은 大學院 以上の 과업으로 넘겨도 마땅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우리 大學은 社會奉仕機關으로서 그 役割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大學은 더 이상 存在意義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大學이 그 社會의 當面課題에 등을 돌린다면 그 大學은 이미 存在價値를 상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學은 종래의 傍觀者의 입장을 탈피하여 積極的인 參與者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大學은 먼저 韓國의 大學이어야 한다. 이 나라 이 民族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동안 키운 實力을 이 社會에다 還元하는 데 우리 大學의 使命이 있는 것이다.

大學은 주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文化的 心臟이 되어야 한다. 나와 家庭과 大學과 社會와 國家를 統合的으로 볼 수 있는 視角을 넓히고 眼光을 더욱 빛나게 하여, 이의 進歩와 向上을 위하여 刻苦의 나날을 지새울 選別된 人재를 양성해내는 溫床이 우리들 모두의 大學이 되어야 할 것이다. *